

‘금생 해탈’ 원력 있어야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절을 올리면서 “저는 이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탁하건대 뒷산의 여우굴을 찾아 승려처럼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백장 스님은 대중을 이끌고 산 뒤쪽의 동굴 속에서 죽은 여우를 한 마리 끄집어내어 승가의 법도에 따라 장례식을 치렀다.

“이것은 선가(禪家)에서는 ‘전백장 후백장’이라는 하나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무애(無碍)나 불매(不昧)나 뜻이 다르지 않는데도 전백장 스님이 자기의 소견대로 함부로 말한 인과로 이백생 동안 여우 몸 받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님들도 법문을 할 때 자기 소견으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탄 일이라 했다. 인용을 하더라도 방편은 방편일 뿐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안 된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극락세계가 어디 있나? 하면서 ‘극락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망언이라. 뼈 깎는 수행으로 극락이 내 마음 속에 있을 정도로 견성을 이루었을 때 극락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함부로 극락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두가 염념상속(念相續)해야 하듯이 염불수행 또한 망념(妄念)이 섞이지 않도록 일심으로 염념상속해야 염불삼매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에 염불선도 결코 쉽지 않다. 일체중생 모두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업이 두텁고, 번뇌에 휩싸여 있어 수행이 수순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선에는 염불선과 화두선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더라도 견성하면 되는 것이 더 수순하다고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자는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팔만장경을 다 외워도 금생에 성취 못하면 다 외도(外道)라. 왜냐하면 죽어서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어디 태어날지 모르는데, 다음 생에 깨달겠다고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말고 사람 몸 받고 불법을 만난 금생에 정진해 해탈해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극락국도에서는 하품하생에서 중품중생으로 올라가려면 2000여년을 뒤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팔만 뒤이면 일 년만 해도, 삼 년 만해도 중품중생으로 바로 올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해결하겠어요? 아마타부처님의 48대원이 염불수행을 발원한 중생들을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불행자는 꼭 아마타부처님에게 ‘명을 마치고 나를 극락세계로 데려가 달라’고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주에 무수한 부처들이 있는데 꼭 아마타불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근본 서원이 가장 강력하고 그 서원은 오락약세에 가장 알맞기 때문’이며 또 ‘아미타불의 공덕과 지혜, 신통력과 수행력,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라 한다.

광덕사를 ‘만일염불수행도량’으로 만든 연유를 알 것 같다. 스님의 정토관은 확고하다. 스님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님의 치열한 수행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평생 염불수행으로 일관해 온 중국의 우익 스님은 결과부좌하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든 채로 입적했다고 하는데, 운성 스님의 원력도 그러하다.

산문을 나서니 노을이 내려앉은 호수와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마치 극락세계라도 갔다 온 듯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낯설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운성 스님은 ...

1941년 경남 합천출생. 1956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통도사 강원에서 사십 수료. 제방에서 6하안거 성만. 1988년 사회복지법인 화성양로원 이사장, 1992년 (사)대구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부원장, 1998년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장, 1998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역임. 지금은 소백산 장안사 회주이며, 대구 광덕사에 주석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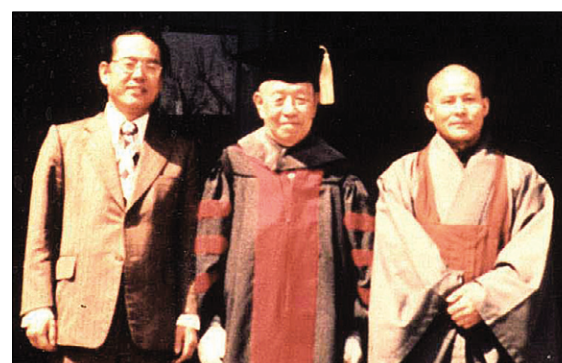
64. 한국현대불교의 증흥조 운허 대중사

불교를 증흥한다는 것은 절을 짓고, 종단을 만들고, 종도들을 양성하는 데도 있지만 불초(佛祖)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법보(法寶)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한문을 대본으로 한 경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학자나 스님, 전문적인 불교신도가 아니면 가히 접할 수 없는 난관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번역해 보기도 하였지만, 한계에 부딪쳐 20여종 번역에

로 완성한 <금강경> 원고 팔천매를 통째 내 주시면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보내주시시오” 하니 “너무 고마워 할 말이 없다” 하고 책이 나온 뒤에는 불교사전 두권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감사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뒤 불교통신대학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더니,



동국대 역경원을 설립한 운허 스님(가운데)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나는 가족이 있거든. 그런데 비구승 측에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이 좋긴 좋으나 나는 거짓된 중노릇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야.”

잠으로 가슴 아프고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 같은 기분은 느꼈다. 특히 스님은 “나 같은 응색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법을 핑계하여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기산 스님은 “운허 스님 같은 양심가가 없어. 오늘 대처승이 내일 비구가 되어서 남의 절 빼앗으려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동국대 역경원 설립... 불경 번역 · 사전 편찬에 앞장서

불과하였고, 해방 후 만(卍)사회를 중심으로 몇몇 서점과 사찰에서 경전을 번역한다고 하였지만, 모두가 하늘 가리는 부재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한학을 전공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독립운동에 앞장 서 만주 땅에 갔던 운허옹(玄虛龍夏, 1892~1980) 스님께서 불가에 입산한 뒤 교육과 역경 두 곳에 원력을 세워 광동·고등학교를 세우고, 한편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설립하여 거국적인 불사를 실행함으로써 명자 그대로 8만 대장경이 우리 눈앞에 한글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 일이야말로 한국불교를 증흥하는 쾌사(快事)라 할 수 없다.

내가 운허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불교사전을 편찬하고 계실 때,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성북동 청룡암을 찾았을 때이다. 기산 노사께서는 필생의 작업으

“다른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으면 나도 참석하겠다” 하여 1972년 상락항 수도원에서 김동화 박사님과 김대은 스님을 함께 모시고 ‘초·중·고·대학’의 20여 권의 통신교재를 편찬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일이 있다.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전통교육도 무시할 수 없으니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교재를 편찬되, 초·중과(1·2학기)에서 불교신자의 자질을 맞추게 하고, 고등과 대학과(3·4학기)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통신대학교 교재가 스님의 말씀대로 편찬되었다.

그 뒤로 김교남 선생(광동학교 교장)님과 함께 한번 오시고, 또 한번은 그냥 혼자 오셔서 상락정에서 두어 시간 홀로 앉아 계시다가 점심공양을 하셨는데, 그때 나직한 말씀으로 “부끄러운 중노릇을 하고 있다” 피력했다.

라고 하셨다. 실로 스님 회갑 때 스스로 지은 계승을 보면 스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빈 털털이 처량하게 안겨드는 나그네에게/ 조출한 환갑상을 차려주니 그대 고맙구려/ 충성을 다하던 처음의 뜻, 꿈결로 돌아갔는데/ 부처를 섬기려던 반평생도 헛 이름만 빛졌네/ 아내와 유명을 달리한 일 못내 가슴 아픈데/ 전쟁터에 죽어간 아들 소식 가장 마음에 걸리니구려/ 지나온 60년 일을 돌이켜 보노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나도 진정 모르겠구려.”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생각했지만 특히,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후락씨가 특사로 북한에 갔을 때 거의 철야정진 하시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셨으니 말이다.

스위스 기술로 만든-초절전형 12㎡(3.5평) 실내 전체를 22℃까지... 전기료 1시간 35원

505W/낮은 전력으로
New Convection Technology
이코노 히터 2
초절전 전기난방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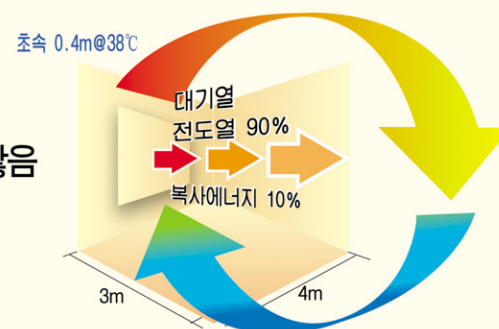
난방효과 더욱 강력해졌
동절기 근무시간 이후 대체난방 해결사

(33㎡(10평) 10시간 사용 전기료 한달- 35,000원)
(주택의 경우 누진세 적용되므로 별도)

난방비 최저 50% 절약하고, 탄소마일리지 받자

- 사무실, 오피스텔, 병원, 연구실, 도서실, 휴게실, 기도실, 자하실
친환경적 자연 원리 이용-난방비 50% 이상 절감
- 시간외 근무, 주말 근무시 난방이 안되는 업무용 빌딩의 대체 난방
화재위험 없고, 별도 공간차지 하지 않는 초절전형
- 외풍, 건물외벽방, 발코니 난방해결
전체 보일러 온도 높이지 않고, 추운 사각지역 해결

- 벽에 부착, 공간을 차지 하지 않음.
-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냄새없고, 소음없음.
- 산소소모 하지않아 24시간 가동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음
- 알르레기 유발할 먼지를 일으키지 않음.
- 건조하지 않아 눈이나 입술이 마르지 않음.
- 유지관리비 없음, 디자인이 우아함.



- 자연의 원리에 따른 친환경적 -

밀 바닥에 있는 찬 공기가 히터쪽으로 모여서 따뜻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 올라가고, 자연 순환하게 하므로 실내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게 집니다.



전자파차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번호 : SY07003-8001
제조물책임배상 보험 : 1억원 가입.

NAVER 검색상세 주관상사 www.juanscorp.net

ECONO-HEAT THE WARMTH OF A HOME (주)주안상사 JUANS CORPORATION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69-1번지

대리점모집 및 문의
070-7124-9301, 9303